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Music Biz Weekly Brief

음악산업 주간브리프

제10호
2009.2.13~2009.2.19

I . Analysis Overview 1

II . 국내 동향 4

1. 산업정책 및 제도 4
2. 음악업계 동향 5
3. 소비자동향 7
4. 언론동향 12
5. 행사 및 협회 소식 외 14

III . 해외 동향 16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16
2. 한류관련 음악사업 동향 19

I. Analysis Overview

I. Analysis Overview 1

II. 국 내 동 향

1. 산업정책 및 제도 [김평수 연구원] 4

1.1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접수 4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고 계도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안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접수. 이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묻지마 저작권소송"에 대한 제동 기대

1-2. 美 업계, 한국 저작권침해 감시대상국 지정 요청 4
 오바마 행정부가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지적재산권 관련 업계가 한국을 지적재산권 위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시킬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건의

2. 음악업계 동향 [김훈 연구원] 5

2-1. '빅뱅' 서든어택 안으로! 5
 게임하이(대표 김건일)에서 개발하고 CJ인터넷(대표 정영중)의 게임포탈 '넷마블'에서 서비스 하는 <서든어택>에서 국내 최고의 아이돌 그룹 '빅뱅'을 만나게 된다

2-2. iMBC- 유니버설뮤직, 한류중심 엔터테인먼트 공동사업 추진 5
 iMBC는 한류 콘텐츠 사업 및 해외 판매 부문 강화를 위해 유니버설뮤직과 전략적 제휴를 17일 체결

2-3. 'MR제거 동영상' 음악업계 가창력 핫이슈 5
 'MR제거 동영상' 을 통해 빅뱅, 소녀시대, 이효리, 비, 동방신기 등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창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몇몇 다른 인기그룹들은 실망스런 평가를 보여

2-4.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범위 확대 6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가 음악, 영상, 출판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범위를 게임과 만화분야까지 확대 실시

2-5. 기타 단신 등 7
 - "美UCLA 한국전통음악과를 살려 주세요"
 - 빅뱅 승리 '스트롱베이비' 美 유명 패션쇼 음악 선정 눈길

3. 소비자 동향 [서상아 연구원] 7

3-1. 혜성처럼 나타난 새 음반들의 강세 7
 신혜성, 플라이 투 더 스카이 같은 중견 가수들이 새 앨범을 출시하면서 음반 판매량이 급등, 이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주간 판매량 5만 장 돌파의 기록을 세웠다.

3-2. 신보 음원들의 시동 걸기 시작 10
 연초부터 계속되던 소녀시대의 강세가 누그러지는 가운데 왁스를 비롯한 화요비, 별 등의 신보 음원이 순위 상승을 하고 있어 음원 차트 또한 음반과 마찬가지로 지각변동이 일어날 조짐이 감지.

4. 언론 동향 [박진석 연구원]..... 12

4-1. 소녀시대, 6주 연속 '엠넷차트' 정상 차지 12
 소녀시대의 열풍이 대중은 물론 음악업계에까지 '소녀시대 신드롬'으로 불릴 만큼 대단한 파급효과를 낳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엠넷차트'에서도 6주 연속 정상에 올라

4-2. 제2의 월드스타에 대한 언론의 관심 증폭 12
 미국 음악시장에 진출한 스타들의 본격적인 활동 계획이 밝혀지면서 가수 '비'에 이은 제 2의 월드스타는 누가 될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증폭

4-3. 음악업계, 공연분야를 비롯하여 불황으로 공포 13
 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음악 업계 전반에 있어 타격, 비교적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공연 분야의 체감온도는 더 낮아

4-4. 주요 단신 14
 -음제협, 청년 실업자 채용 돕는다
 -이고시스템, 美 최대악기유통사와 계약

5. 행사 및 협회 소식 [장정희 연구원] 14

5-1. 프리저작물 활용 및 저작권 나눔 확산사업 공고 14
 「프리저작물 활용 및 저작권 나눔 확산」사업을 추진할 주관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
 - 제출기한 : 2009. 2. 25(수) 10:00 ~ 2009. 2. 26(목) 10:00
 - 사업설명회 : 2009. 2. 19(목) 16:00 ~ (장소 : 위원회 3층 회의실)

5-2. 대중음악공연장 구축을 위한 사전 운영 연구사업 15
 ○ 사 업 명 : 대중음악공연장 구축을 위한 사전 운영 연구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09년 4월 20일
 ○ 사업예산 : 20,000천원 이하(VAT 포함)

5-3. 싸이월드 디지털뮤직어워드 15
 이 달(1월)의 노래인 'Song Of The Month'로 선정된 소녀시대의 댄스곡 'Gee'는 싸이월드 내에서 한 달 동안 총 24만9천여곡이 판매

Ⅲ. 해 외 동 향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고민정, 장정희]..... 16

1-1. Sony Music, YouTube와 재계약..... 16

디지털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린 소니, 디지털 다운로드 판매 판로로 YouTube와 재계약하는 전략을 선택, 이후 EMI, Universal 등의 움직임 주목됨

1-2. 영국 디지털 음악회사, 무제한 음악청취 서비스 시작..... 16

런던에 기반을 둔 디지털 음악 회사인 Onmifone이 ISP와의 협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유럽의 가정에 무제한 음악 청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 무제한 음원청취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

1-3. 인터넷라디오 방송사 대상 저작권료 인상률 인하..... 17

전미 방송 협회(NAB)와 저작권료 징수 업체인 SoundExchange가 인터넷으로 상업적인 라디오 방송을 하는 수천 업체들에 대해 요금 인상률을 경감하기로 합의체결

1-4. 자메이카 정부, 음악에 대한 심의 강화 18

자메이카의 수상인 Bruce Golding이 전자매체를 통해 공중파로 방송되고 중계되는 음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라는 일련의 행동지침을 발표. 한동안 한국 가요계에 이슈가 되었던 유명 가수들 곡의 음란물 유해 판정 논란과 비슷한 현상

1-5. 주요 단신..... 18

- 디지털 뮤직 포럼 개최
- Logitech Squeezebox 네트워크 뮤직플레이어 출시
- 승강기 배경 음악 판매회사인 Muzak Holdings 파산
- 러시아 디지털 투자 업체, Ru-Net II가 Digital Access

2. 한류관련 음악산업현황 [고민정, 김평수]..... 19

2-1. 태군, 신진 한류 스타 예감 19

타이틀곡 'Call Me'로 데뷔한 태군은 파워풀한 무대와 퍼포먼스, 그리고 이른바 '콜미춤'으로 인기몰이 중.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담은 동영상의 해외에 소개되면서 많은 관심 받고 있다.

2-2. 2AM 첫 해외 프로모션, 태국 방문 성황 20

14일 첫 해외프로모션을 위해 태국으로 출국한 2AM은 3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Ⅱ. 국내 동향

1. 산업정책 및 제도

1-1.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접수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고 계도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안이 공식적으로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접수 되었다. 이 법안으로 청소년에 대한 소위 "묻지마 저작권소송"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

- 제안자 : 최구식(한나라당) 외 19인
- 제안일 : 2009년 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무법인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찾아내어 고소함으로써 합의금을 통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소가 10대 청소년을 자살로까지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음.

청소년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계층이나, 저작권보호에 관한 사회 교육적인 토대가 미약한 현실에서 자기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저작권재산권은 중요한 보호법익이지만,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을 형사 처벌하여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업성이나 침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사 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계도를 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함께 청소년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의2 신설).

[관련사이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09-02-19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0P9B0H2Y1Q7G1W1D5I0V1K7P1Q2Q3

1-2. 美 업계, 한국 저작권침해 감시대상국 지정 요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계가 17일 한국을 지적재산권 위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시킬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건의, USTR의 조치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美 업계, 한국 저작권침해 감시대상국 지정 요청 [연합뉴스 2009-02-18]

미 업계, 한국 저작권침해 감시대상국 지정 요청 [mbn 2009-02-18]

2. 음악업계 동향

2-1. '빅뱅' 서든어택 안으로!

게임하이(대표 김건일)에서 개발하고 CJ인터넷(대표 정영종)의 게임포탈 '넷마블'에서 서비스 하는 <서든어택>에서 국내 최고의 아이돌 그룹 '빅뱅'을 만나게 된다.

게임하이와 YG엔터테인먼트(대표 양현석)는 지난 2월 13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서든어택>에 YG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그룹 '빅뱅'을 이용한 다양한 스타마케팅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게임하이는 <서든어택>에 '빅뱅' 멤버들을 게임 콘텐츠화 해 게임과 음악을 결합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모델을 개발하여 팬들에게 서비스하며 이를 통해 국내, 해외의 콘텐츠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게 되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서든어택>의 풍부한 유저풀을 활용해 게임 내 배경음악과 PPL을 통한 '빅뱅' 홍보와 벨소리 등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빅뱅' 서든어택 안으로! [게임하이 2009.02.12]

빅뱅, 온라인 게임 '캐릭터+음악' 결합 [조이뉴스24 2009년 2월 16일] 외

2-2. iMBC- 유니버설뮤직, 한류 중심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동사업 추진

iMBC는 한류 콘텐츠 사업 및 해외 판매 부문 강화를 위해 유니버설뮤직과 전략적 제휴를 17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MOU에는 iMBC가 한류 스타들의 MBC 영상을 상품화하고 유니버설뮤직이 일본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로 해외 마케팅을 진행하여 엔터테인먼트 사업 전반에 걸쳐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iMBC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국내에서 먼저 출시되어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신화 MBC COLLECTION DVD'의 일본어 판 제작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한류 스타 콘텐츠 제작 및 해외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한 iMBC의 수익 다각화 및 매출 확대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iMBC, 유니버설뮤직과 한류 콘텐츠 사업 전략적 제휴 체결 [브레이크뉴스 2009.02.18]

iMBC, 유니버설뮤직과 한류 콘텐츠 사업 제휴 [프라임경제 2009.02.17] 외

2-3. 'MR제거 동영상' 음악업계 가창력 핫이슈

최근 'MR제거 동영상' 이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면서 가창력에 대한 논란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

'MR제거 동영상' 을 통해 빅뱅, 소녀시대, 이효리, 비, 동방신기 등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창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몇몇 다른 인기그룹들은 실망스런 평가를 보이며 가창력 논란에 빠져들었다.

특히, 빅뱅의 경우 멤버전원이 'MR제거 동영상' 을 통해 안정된 가창력을 평가받으며 이번 'MR제거 동영상' 논란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MR제거 동영상'을 가창력 검증의 가능자로 보기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빅뱅MR제거'비MR제거'소녀시대MR제거' 네티즌이 가창력 인정! [아츠뉴스 2009.02.19]
- MR제거 네티즌, "가창력은 빅뱅에 한 표~" [아시아투데이 2009.02.19]
- MR제거 동영상, 가창력 검증의 가능자 될까? [SSTV 2009.02.18]
- 아이돌 가수 가창력, MR제거하니 비교되네 [아시아투데이 2009.02.18]
- 'MR제거 영상' 가창력 심판, "동방신기, 빅뱅 라이브의 고수" [굿데이스포츠 2009.02.18] 외

2-4.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범위 확대

○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는 음악, 영상, 출판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범위를 게임과 만화분야까지 확대 실시하여 2009년 1월 한 달 동안의 단속실적을 발표하였다.

- 단속결과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모두 385,599점이었으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음악분야로 전체 단속량의 60%를 넘는 231,987점이 적발되었다. 이밖에 만화가 127,308점으로 약 1/3 가량을 차지했으며 영상(11,076점), 출판(10,144점), 게임(5,084점)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올해부터 단속을 시작한 불법게임복제물의 단속수량은 각 게임 저작물의 소매가격 적용시 1억 7,500만 원 이상의 규모로 조사되어 이 분야에 대한 단속·계도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통경로별 단속수량을 살펴보면, 웹하드가 346,753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포털, P2P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웹하드의 불법복제 단속률이 약 90%로 대부분을 차지해 웹하드 상에서 불법복제물 유통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한 불법 복제물을 주변의 지인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유통량은 단속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관련사이트]

<http://www.cleancopyright.or.kr/> [저작권보호센터 2009/2/17]

2-5. 기타 단신 등

- "美UCLA 한국전통음악과를 살려 주세요"

현재 전수교육 조교(준문화재)인 김묘선(52) 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교수가 폐과 위기에 처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의 한국 전통음악과를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관련기사]

"美UCLA 한국전통음악과를 살려 주세요" [연합뉴스2009.02.18]

- 빅뱅 승리 '스트롱베이비' 美 유명 패션쇼 음악 선정 눈길

승리의 솔로곡 '스트롱베이비'는 15일 오후 6시(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꾸뛰르패션위크(couturefashionweek) 행사 배경 음악으로 선정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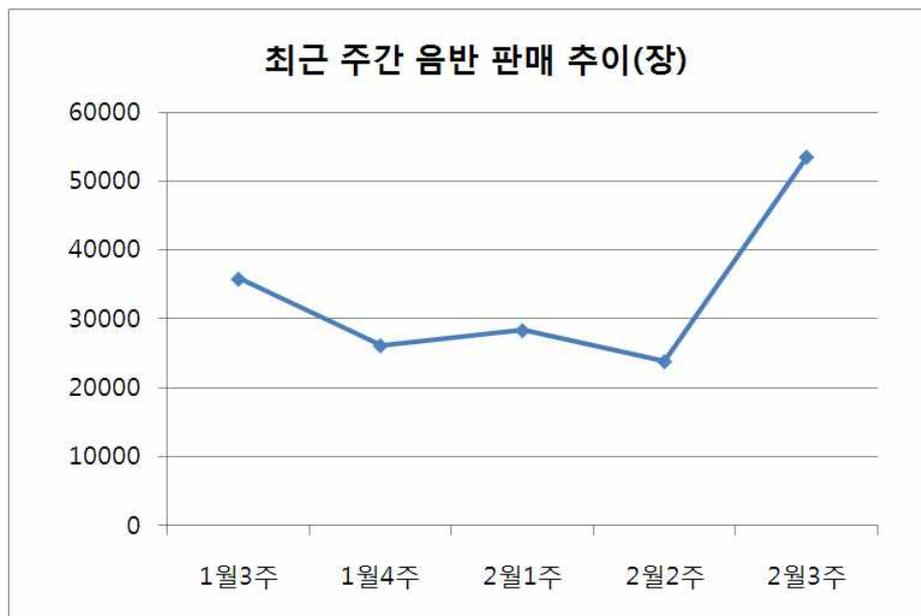
[관련기사]

빅뱅 승리 '스트롱베이비' 美 유명 패션쇼 음악 선정 눈길 [뉴스엔 2009.02.18]

3. 소비자 동향

3-1. 음반동향 : 혜성처럼 나타난 새 음반들의 강세

지난주 2009년 최저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절망감을 안겨주었던 음반동향은 2월 3주(2월 12일 ~ 2월 18일)에 주간 판매량 5만 장을 돌파하면서 올해 들어 최고의 판매고를 보여주었다. 그동안 3만 장 판매도 어렵던 음반 판매량이 한 주 만에 급반등하는 모습이었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2월 12일 - 2월 18일)

현재 별다른 라이벌 없이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소녀시대의 컴백 때도 넘지 못한 5만 장 판매기록은 신화 출신의 신혜성,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등 소위 1세대 아이돌 가수들의 컴백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에 출시된 새 음반의 경우 판매량이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금주에 출시된 앨범은 출시와 동시에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어 그 동안 얼어있던 음반 구매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순위	변화량	아티스트 / 앨범명	음반사	장르	금주 판매량	전주 판매량	발매일
1	진입	신혜성 3집 side2 / Keep Leaves	예당	가요	16591	0	2009-02-16
2	진입	플라이 투 더 스카이 8집 / Decennium	로엔	가요	12217	0	2008-02-10
3	진입	에프티 아일랜드 미니앨범 / Jump Up	도레미	가요	3226	0	2009-02-17
4	▼3	소녀시대 미니앨범 1집 / Gee	에스엠	가요	2794	3,847	2009-01-07
5	▼2	바비킴 / Special Album	도레미	가요	2767	2,713	2009-01-12
6	▼4	빅뱅 2집 / Remember	엠넷	가요	2,605	2,740	2008-11-05
7	▼3	이소라 7집 / 겨울, 외롭고 따뜻한 노래	엠넷	가요	1,957	1,714	2008-12-17
8	▼3	백지영 7집 / Sensibility	로엔	가요	1,741	1,633	2008-11-14
9	▼3	동방신기 4집 / Mirotic	에스엠	가요	1255	1417	2008-09-26
10	▲3	화요비 미니앨범 / This Is Love	로엔	가요	1174	735	2009-02-06
11	▼4	지선 1집 / 인어...집으로 돌아오다	엠넷	가요	958	1174	2009-02-03
12	▼4	린 5집 / Let Go, Let In, It's A New Day	비타민	가요	931	604	2008-01-13
13	진입	리오 케이코야 2집 / 검은띠	포니캐년	가요	904	0	2008-02-12
14	▼4	KCM 미니앨범 / Espresso	포이보스	가요	769	823	2008-02-03
15	▼6	리쌍 5집 / 백아절현	엔터움	가요	688	850	2009-01-09
16	▼4	원더걸스 / The Wonder Years : Trilogy	로엔	가요	634	742	2008-09-30
17	▲2	이문세 / Memories	예전	가요	607	472	2004-05-21
18	▼7	정엽 1집 / Thinkin' Black On Me	엠넷	가요	600	796	2008-11-04
19	▲34	소녀시대 1집 Repack / Baby Baby	에스엠	가요	553	200	2008-03-13
20	▲42	윤하 2집 / Someday	로엔	가요	526	100	2008-0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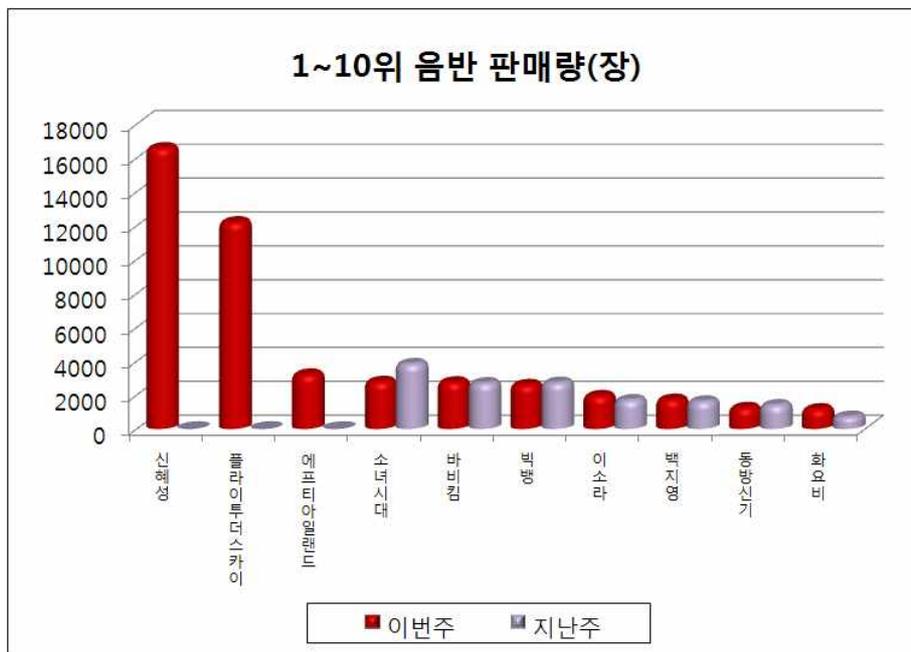
출처 : 주)한터정보 (기간:2월 12일 - 2월 18일)

이번 주 음반 차트의 1위부터 3위는 모두 새 음반으로 그 중 1위에 랭크된 신혜성의 3집 앨범은 16일에 출시되어 1만6천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실질적인 판매기간이 3일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얼어붙었던 음반 시장을 흔드는 기폭제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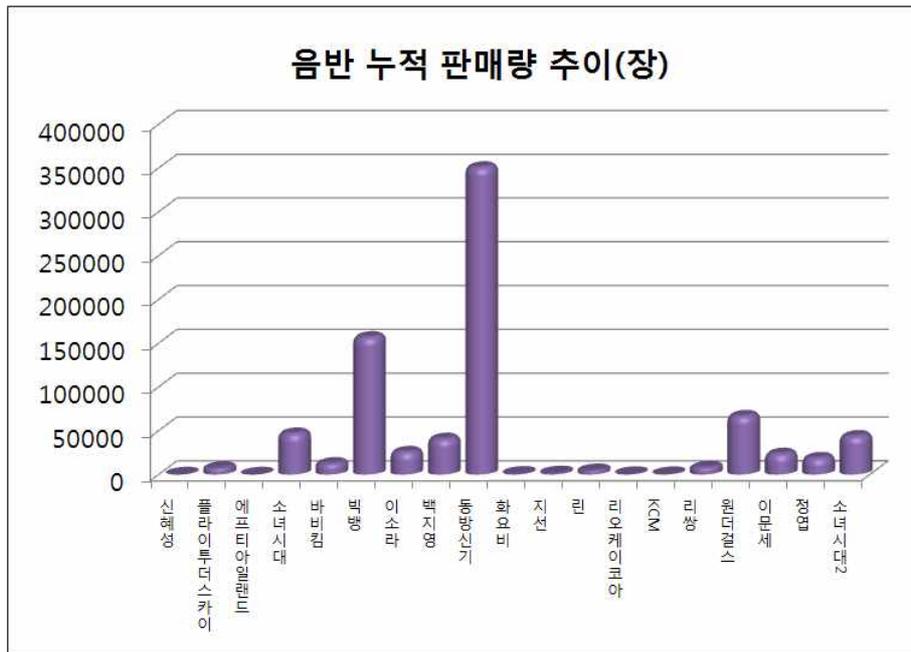
또한 지난주 출시된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8집 역시 일주일 동안 1만2천 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였고, 멤버 교체 후 17일 출시된 에프티아일랜드의 음반도 3위에 랭크되면서 판매 2일 동안 3천 장이 넘는 음반이 판매되었다.

1위에서 3위에 나란히 랭크된 새 음반들 외에도 화요비, 지선, KCM 등의 신보 역시 차트 중상위권에 진입하면서 비교적 높은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였다. 이 같은 새 앨범 판매량 급증과 더불어 기존에 차트 상위권을 지키던 음반들 역시 꾸준한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주간 판매량 상승에 일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2월 12일 - 2월 18일)

누적 판매량에서는 오랫동안 차트를 지키던 음반들이 하위권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새 음반들이 채우면서 주목할 만한 음반은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동방신기의 4집 앨범이 35만 장의 고지를 넘으며 새로운 기록을 만들고 있었다.



출처: 주)한터정보, 편집: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 발매일 - 2/14일, 단 이문세 앨범의 경우 08년 1월 5일부터 09년 2월 14일까지)

2월 3주의 음반동향 차트는 신혜성, 플라이 투 더 스카이 같은 중견 가수들이 새 앨범을 출시하면서 음반 판매량이 급등하였고 이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주간 판매량 5만 장 돌파의 기록을 세웠다. 이 외에도 에프티아일랜드, 화요비, 지선 등 새 음반들의 판매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동안 저조하였던 음반 차트의 부활이 기대되고 있다.

3-2. 음원동향 : 신보 음원들의 시동 걸기 시작

2월 3주의 음원동향은 2주째 전 차트를 석권했던 소녀시대의 1위 행진이 주춤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반동향과 마찬가지로 음원에서도 여러 신곡이 출시되면서 기존의 순위들이 바뀌고 있었다.

이 같은 순위 변동 속에서도 여전히 소녀시대의 <Gee>는 3개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벅스뮤직에서 왁스의 신곡 <전화 한 번 못하니>가 진입 첫 주 만에 1위로 급부상하였고 다른 사이트 역시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기존의 소녀시대 강세 또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금주 출시되어 음원차트로 진입한 화요비의 <반쪽>, 별의 <드라마를 보면> 등이 왁스의 노래를 이어 나란히 상위권에 안착하였다.

중위권 순위에서도 지난주에 출시된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가버려 너>, 대성의 <대박이야>와 더불어 1월에 출시된 발라드 곡들이 혼전양상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를 탔던 케이윌의 <러브119>, 카라의 <Pretty Girl> 등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다.

순위	박스 2/5 ~ 2/11	엠넷 2/9 ~ 2/15	도시락 2/9 ~ 2/15	멜론 2/8 ~ 2/14
1	왁스 / 전화 한 번 못하니	소녀시대 / Gee	소녀시대 / Gee	소녀시대 / Gee
2	화요비 / 반쪽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3	별 / 드라마를 보면	화요비 / 반쪽	왁스 / 전화 한 번 못하니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4	소녀시대 / Gee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화요비 / 반쪽	김경록 / 이전 남이야
5	이승철 /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왁스 / 전화 한 번 못하니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티 / 떠나지마
6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보이스원 / 못한 내 사랑	티맥스 / 파라다이스	린 / 사랑 다 거짓말
7	대성 / 대박이야	김경록 / 이전 남이야	애프터스쿨 / AH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8	Fly To The Sky / 가버려 너	티 / 떠나지마	별 / 드라마를 보면	케이윌 / 러브119
9	티맥스 / 파라다이스	티맥스 / 파라다이스	티 / 떠나지마	화요비 / 반쪽
10	KCM / 멀리있기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동방신기 / 주문	카라 / Pretty Girl
11	백지영 / 입술을 주고	썸데이 / 알고있나요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애프터스쿨 / AH
12	티 / 떠나지마	린 / 사랑 다 거짓말	썸데이 / 알고있나요	Fly To The Sky / 가버려 너
13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애프터스쿨 / AH	대성 / 대박이야	티맥스 / 파라다이스
14	린 / 사랑 다 거짓말	이승철 /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김경록 / 이전 남이야	럼블피쉬 / 비야 당신
15	수호 / 부재중 전화	바비킴 / 사랑 그 놈	린 / 사랑 다 거짓말	백지영 / 총 맞은 것처럼
16	썸데이 / 알고있나요	Fly To The Sky / 가버려 너	바비킴 / 사랑 그 놈	빅뱅 / 붉은 노을
17	애프터스쿨 / AH	백지영 / 입술을 주고	Fly To The Sky / 가버려 너	바비킴 / 사랑 그 놈
18	바비킴 / 사랑 그 놈	대성 / 대박이야	샤이니 / Stand By Me	왁스 / 전화 한 번 못하니
19	쥬얼리S / 데이트	케이윌 / 러브119	KCM / 멀리있기	대성 / 대박이야
20	태군 / Call me	카라 / Pretty Girl	카라 / Pretty Girl	SS501 / U R Man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박스뮤직의 경우 다른 사이트보다 신곡들의 강세가 유독 심하게 나타 났다. 1위에서 3위 곡 모두 처음으로 차트에 진입한 신곡이었으며 보름 이상 차트에 체류한 곡들은 몇 곡 되지 않았다. 박스뮤직 만큼은 아니지만 그 외 사이트 역시 신곡들이 속속 차트로 진입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금주 음원 차트는 연초부터 계속되던 소녀시대의 강세가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동시에 왁스의 신곡을 비롯한 신보 음원들의 차트 진입과 순위 상승이 동반되면서 음원 차트 또한 음반과 마찬가지로 지각변동이 일어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4. 언론 동향

4-1. 소녀시대, 6주 연속 '엠넷차트' 정상 차지

소녀시대의 열풍이 대중은 물론 음악업계에까지 '소녀시대 신드롬'으로 불릴 만큼 대단한 파급효과를 낳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엠넷차트' 에서도 6주 연속 정상에 오르는 등 그 위력을 확인하고 있다. 언론은 18일자 보도를 통해 이를 전하는 한편, 소녀시대를 통해 벌어들이는 SM엔터테인먼트의 수익에 대해서도 덧붙여 다루었다.

엠넷 측의 18일 순위 발표에 따라 소녀시대는 '엠넷차트'에서 6주 연속 정상에 올랐다. 이것은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원더걸스 '노바디'의 기록을 경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최근 이렇다 할 경쟁자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멤버 구성원들이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등, 그 열풍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언론은 소녀시대가 불과 한 달여 만에 35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도하고 이를 관심 있게 보도하기도 했다. 현재 밝혀진 소녀시대의 음반 판매량은 약 8만장 정도로 이는 10억 원의 매출에 해당되며, 음원 수익 역시 10억 원을 돌파 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광고수익은 약 15억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인기만큼이나 큰 규모를 나타내는 소녀시대의 경제적인 효과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일본 및 다른 해외로의 음반 수출부분에서도 호조를 보이는 등 앞으로의 행보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업계를 비롯한 언론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소녀시대 Gee 신드롬! 5주 만에 35억+ 벌었Gee! [동아일보 2009-02-17]

소녀시대 '지' 엠넷차트 6주연속 1위 '기염' [아시아경제 2009-02-18]

Gee! 소녀시대 원더걸스 누르다 [매일경제 2009-02-18]

소녀시대, 중독성 강한 'Gee'로 6주 연속 정상 차지 [조선일보 2009-02-18]

4-2. 제2의 월드스타에 대한 언론의 관심 증폭

미국 음악시장에 진출한 스타들의 본격적인 활동 계획이 밝혀지면서 가수 '비'에 이은 제 2의 월드스타는 누가 될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언론은 현재 미국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보아와 세븐은 물론 할리우드 진출에 성공한 손담비까지 목록에 올리면서 그들의 성공 가능성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 음악시장 진출을 처음으로 본격화 한 보아를 시작으로 현지의 반응과 그 가능성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검토되면서 아시아의 무대가 좁다고 여겨지는 한류 스타들은 미국시장으로 새롭게 눈길을 돌리고 있다. 물론 할리우드 진출을 통해 성공한 가수 '비'의 경우도 많은 스타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언론이 주목한 스타들은 보아, 세븐, 손담비, 이들 셋과 더불어 새롭게 떠오른 아이돌 스타인 원더걸스까지 포함한다. 남자 가수인 세븐은 현지에서 동양의 '저스틴 팀버레이크' 라는 호평 속에 성공 여부가 주목되고 있으며, 보아는 빌보드 'Hot Dance Club Play' 차트에서 8위에 입성한 성적이 보도되면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가수 손담비 또한 할리우드 진출에 성공하면서 월드스타로의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 미국시장의 개척을 서서히 시작하고 있는 원더걸스가 역시 중점적으로 보도되는 등 불황을 타계할 블루오션으로서 미국 음악시장을 선택한 대형 가수들의 행보는 꾸준히 언론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슈에 목말라하는 국내 연예 언론의 월드스타 찬양이 지나친 것은 아닌가하는 의견도 보도되면서, 제 2의 월드스타 찾기에 대한 우려의 입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역설적으로는 월드스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기사]

- SM "보아 美1집 타이틀곡, 현지느낌 강화" [아시아경제 2009-02-18]
- 비-보아, 美 시장 왜 정복해야 하나 [매일경제 2009-02-18]
- 3월5일! '원걸' 새 날이 열린다 LA서 콘서트 출발 [동아일보 2009-02-18]
- 보아, 세븐, 손담비...제2의 월드스타는 누가될까? [세계일보 2009-02-17]

4-3. 음악업계, 공연분야를 비롯하여 불황으로 공포

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음악 업계 전반에 있어 타격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연 분야는 더욱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올 한해 내한 예정이던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피츠버그 심포니', '빈 심포니' 등 해외 명문 악단의 공연 다수가 취소되었거나 주체측이 물러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공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경기 침체의 여파가 지속됨에 따른 파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명 악단의 공연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콘서트 역시 크게 줄고 있는데, 콘서트 티켓 예매 포털인 인터파크, 옥션티켓, 티켓링크 등에 따르면 현재 콘서트 분야는 좌석 점유율은 물론 그 양적인 면에서도 작년보다 크게는 절반가량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불황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아 문을 닫는 공연기획사가 속출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업계는 더욱 공포 얼어붙고 있다.

또한 음반제작에서도 제작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의 '디지털 싱글' 형태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있으며, 뮤직비디오 분야도 이에 못지않은 불황이 보도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형 연예기획사를 통해 배출된 아이돌 스타들인 빅뱅, 소녀시대 등은 꾸준한 인기몰이를 지속하며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수익 집중화가 대중

음악 전반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봄은 오는데... 가요계는 '한겨울' 속으로 [세계일보 2009-02-18 17:48]
 [2009 불황을 넘자! 대중문화 경기한파 '공공'... 위기가 곧 기회 [조이뉴스24 2009-02-17]
 해외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잇따라 취소 [조선일보 2009-02-16 05:57]
 국가가 나서야 가요가 산다..이상하지만 정답 [뉴시스 2009-02-15 08:32]

4-4. 주요 단신

○ 음제협, 청년 실업자 채용 돕는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청년 실업자의 채용 돕기에 나선다.

[관련기사]

음제협, 청년 실업자 채용 돕는다 [노컷뉴스 2009-02-16]
 음제협 "청년실업 해결 나선다"...청년인턴 위탁기관 선정 [아시아경제 2009-02-13]

○ 이고시스템, 美 최대악기유통사와 계약

이고시스템은 자사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3종과 모니터링 스피커가 미국 '기타센터'의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다고 16일 밝혔다.

[관련기사]

이고시스템, 美 최대악기유통사와 계약 [파이낸셜뉴스 2009-02-16 11:51]

5. 행사 및 협회 소식 등

5-1. 프리저작물 활용 및 저작권 나눔 확산사업 공고

「프리저작물 활용 및 저작권 나눔 확산」사업을 추진할 주관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 1). 사업명 : 프리저작물 활용 및 저작권 나눔 확산
-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3). 제출기한 : 2009. 2. 25(수) 10:00 ~ 2009. 2. 26(목) 10:00
 - ** 사업설명회 : 2009. 2. 19(목) 16:00 ~ (장소 : 위원회 3층 회의실)
- 4).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정보화추진팀(02-2669-9955 ~ 7)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참조

[관련사이트]

[입찰공고] 프리저작물 활용 및 저작권 .. [저작권위원회 2009-02-17]

5-2. 대중음악공연장 구축을 위한 사전 운영 연구사업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상암동DMC 콘텐츠홀(문화콘텐츠센터 내)을 대중음악공연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2009년 12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대중음악 공연장을 구축하고자 사전 운영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중음악공연장 구축을 위한 사전 운영 연구사업' 관련 위탁 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업내용

- 사업명 : 대중음악공연장 구축을 위한 사전 운영 연구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09년 4월 20일
- 사업예산 : 20,000천원 이하(VAT 포함)
- 연구내용
 - 국내·외 대중음악공연장 운영 사례 분석
 - 상암동 콘텐츠홀 공연장 운영 방안 수립 등

[관련사이트]

[공고] 대중음악공연장 구축을 위한 사전 운영 연구사업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9/02/17]

5-3. 뉴 네이트 런칭과 함께하는 싸이월드 디지털뮤직어워드 개최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주형철)가 뉴 네이트 오픈을 앞두고, 싸이월드 디지털뮤직어워드와 함께 네이트 런칭 파티를 연다. 22일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싸이월드의 31번째 디지털 뮤직어워드(이하 DMA) 수상자인 '소녀시대'와 '메모리'가 주인공으로 참석한다.

이달(1월)의 노래인 'Song Of The Month'로 선정된 소녀시대의 댄스곡 'Gee'는 싸이월드 내에서 한 달 동안 총 24만9천여곡이 판매되어 역대 DMA 'Song Of The Month' 중 2위의 기록을 세웠다.

괄목할만한 신인에게 주어지는 이달의 신인상인 'Rookie Of The Month'는 '메모리'가 차지했다. '메모리'가 직접 작사 작곡한 '파라다이스'는 2만 1천여곡이 판매되었다.

[관련사이트]

싸이월드 디지털 뮤직 어워드 [http://www.cyworld.com/Cy_DMA 2009-02-17]

Ⅲ. 해외 동향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1-1. Sony Music, YouTube와 재계약

Sony Music Entertainment가 예상대로 YouTube와 재계약한 첫 번째 회사가 되었다고 AllThingsD가 발표했다. 하지만 최종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YouTube가 최소한의 개런티를 없애는 데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소니가 어떻게 광고를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 어느 정도 타협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다.

협상은 세 가지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YouTube가 Sony에게 선불금을 지불하는 것, 누군가 Sony 비디오를 사이트에서 재생할 때마다 Sony가 최소한의 요금을 받는 것, 그리고 양측이 회사 비디오의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발생하는 매출을 나누는 방법이 그것이다.

왜 Sony Music이 Warner Music Group과 함께 YouTube를 압박하는 것을 포기하고 재계약을 선택했는가는 구글의 음악검색을 이용한 광고창출 능력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YouTube가 1억 1천 500만개이상의 비디오 스트리밍을 독점 서비스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디지털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린 소니에게 디지털 다운로드 판매 경로로 YouTube는 매우 적절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재계약의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Sony와 YouTube의 재계약이 다른 대형 음반 회사인, EMI나 Universal Music, Warner Music Group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관련기사]

Sony Music Re-Ups With YouTube First Major Label In Second Wave,
Washington Post, US, 2009-02-12

1-2. 영국 디지털 음악회사, 무제한 음악청취 서비스 시작

런던에 기반을 둔 디지털 음악 회사인 Onmifone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s)와의 협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유럽의 가정에 무제한 음악 청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월요일에 발표했다.

Onmifone은 네 개의 주요 음악 회사들과 TV의 set-top box 혹은 컴퓨터와의 광대역 연결을 통해 무제한의 음원 다운로드와 뮤직비디오와 음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협상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Omnifone은 이미 Wodafone이라는 휴대 전화 사용자들을 위한 무제한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odafone의 음원 라이선스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 라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및 다른 지역 전역에서 인가 받았다.

무제한 음원 제공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음원을 공짜로 얻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 왜냐하면 인터넷 서비스 사용료에 요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제한 음원 청취가 가능한 이 서비스는 음악 산업이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이래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 많은 ISP들은 TV프로그램까지 만들고 있다.

Omnifone는 잠재적 협력업체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Omnifone과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선 지불 후 시청방식의 TV 회사인 BSB(British Sky Broadcasting)도 곧 자사의 음원 온라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Forrester Research의 분석가인 Mark Mulligan은 음악 업체들과 ISP이 입장 차이는 여전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로 인해 조만간 그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양측의 흥미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Omnifone to offer broadband music servic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rance, 2009-02-16

1-3. 인터넷라디오 방송사 대상 저작권료 인상률 인하

음반업체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대행사가 인터넷으로 상업적인 라디오 방송을 하는 수천 업체들에 대해 요금 인상률을 경감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들은 연방 저작권사용료 위원회(Federal Copyright Royalty Board)가 2007년에 매긴 요금이 자신들의 영업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었다.

새로운 계약은 2009년과 2010년의 요금 인상률을 약 16% 낮추기로 했다. 따라서 2009년 현재, 라디오 방송국은 수천 명이 듣는 한 곡당 1.5달러를 내면 되지만, 2015년에는 청취자 1000명 당 2.5달러를 내야 한다.

전미 방송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이하 NAB)와 저작권료 징수 업체인 SoundExchange가 체결한 이 협약은 NAB에 가입한 방송국 중 인터넷 스트리밍 중계업체들을 비롯해 CCC(Clear Channel Communications Inc.)와 CBS그룹과 같이 NAB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다.

성명서에서, NAB의 대변인인 Dennis Wharton은 이 계약을 통해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이 계속 인터넷을 통한 음원을 스트리밍 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으로 무료 지역 라디오와 NAB의 2억 3500만 주간 청취자들 사이에 더 유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관련기사]

Agreement reached on Internet music royalty rates, The Associated Press , 2009-02-17

1-4. 자메이카 정부, 음악에 대한 심의 강화

자메이카의 수상인 Bruce Golding이 전자매체를 통해 공중파로 방송되고 중계되는 음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라는 일련의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문화부 장관인 Olivia 'Babsy' Grange와 교육부 장관인 Andrew Holness는 내각 입장에 찬성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 수상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수상의 권고는 이 사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만남을 가진 뒤에 Jamaica House에서 발표되었다. 또한 수상은 이들 장관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의 연관성 때문에 교통부 장관인 Mike Henry 또한 이 사안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이들이 타는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Golding은 음악을 순화하는데 있어서 정부 혼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들, 아티스트들 그리고 제작자들도 그것에 함께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Grange는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 법률적 수정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법적인 부분에서만 보기 보다는 그와 동시에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개인이 공중파의 내용 순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동안 한국 가요계에 이슈가 되었던 유명 가수들 곡의 음란물 유해 판정 논란과 비슷한 현상이 자메이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메이카의 경우는 이러한 조치가 한 부서 차원이 아니라 수상을 비롯하여 여러 부서가 참여한 정부차원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만하다.

[관련기사]

Government of Jamaica, Jamaica Information Service, Jamaica, 2009-02-16

Jamaica to receive recommendations to clean up music industry,

Caribbean Net News, Cayman Islands, 2009-02-16

1-5. 주요단신

○ 디지털 뮤직 포럼 개최

올해로 9년째를 맞는 디지털 뮤직 포럼이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뉴욕 Big Apple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상위 회사부터 독립 회사들의 경영자들, 아티스트들 등 500개 이상의 엘리트 음악 업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관련사이트]

<http://www.digitalmusicforum.com/east/>

○ **Logitech Squeezebox 네트워크 뮤직플레이어 출시**

개개인을 위한 컴퓨터 주변 기기를 만들어 내는 스위스의 선구적 회사인 Logitech International이 17일, 새로운 음악 서비스인 Logitech Squeezebox 네트워크 뮤직 플레이어 출시를 발표했다. 따라서 17일부터 영국과 독일에서는 Logitech를 통해 7백 만 개가 넘는 곡을 보유하고 있는 Napster의 라이브러리에 접속할 수 있다.

[관련기사]

Logitech Squeezebox Unleashes Music Across Europe, RadioandMusic.com, India, 2009-02-17

○ **승강기 배경 음악 판매회사인 Muzak Holdings 파산**

미국의 잘 알려진 승강기 내 배경음악 판매 회사인 Muzak Holdings가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이로 인해 Muzak은 채권자들에게 1억 5백만 달러 7400만 파운드의 손실을 주었다. Muzak의 CEO인 Stephen Villa는 Muzak은 뛰어난 소비자층을 가진 견고한 기업이지만 10년 전부터 쌓인 부채 의무의 압박을 받아왔다고 말하며 파산 신청은 했지만 회사는 보통 때와 다를 것 없이 계속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Muzak firm files for bankruptcy, BBC News, UK, 2009-02-12

○ **러시아 디지털 투자 업체, Ru-Net II가 Digital Access**

러시아의 디지털 투자 업체인 Ru-Net II가 Warner Music Group과 Sony Music Entertainment가 만든 합작 회사로부터 음원 및 영상 유통이 가능한 Digital Access를 인수했다. Digital Access는 2007년 Warner Music, Sony, Access Industries의 투자로 개발되어 음원, 컬러링, 비디오를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휴대전화 중개업체들에게 유통해 왔다.

[관련기사]

WGM Partnership Sells Russian Online Music Distributor, Los Angeles Business Journal, CA, 2009-02-16

2. 한류관련 음악산업 현황

2-1. 태군, 신진 한류 스타 예감

타이틀곡 'Call Me(콜미)'로 데뷔한 태군은 파워풀한 무대와 퍼포먼스, 그리고 이른바 '콜미춤'으로 인기몰이 중. 동방신기의 영웅재중과 박신혜가 출연한 '콜미'의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담은 동영상이 해외에 소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태국의 한 프로모션 관계자는 직접 한국을 방문, 태군의 태국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고 앨범에 대한 선주문까지 했다.

[관련기사]

'콜미'태군,해외에서도 러브콜...데뷔 즉시 한류스타 CNB뉴스, 2009-02-13
 '콜미' 태군, 新 한류스타 급부상, 매일경제, 2009-02-12
 이준기-태군, 한국이 좋다..포서 주가 급상승, 스타뉴스, 2009-02-13

2-2. 2AM 첫 해외 프로모션, 태국 방문 성황

14일 첫 해외프로모션을 위해 태국으로 출국한 2AM은 3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프로모션 투어는 태국 현지에서 인기리 방영되는 '열혈남아'와 지난해 8월 태국 현지에서 발매된 첫 번째 싱글 'This song'의 인기로 힘입어 태국 최대 쇼핑몰중의 하나인 시암센터(Siam Center)에서 2AM을 밸런타인데이 이벤트에 초청해 이뤄졌다.

2AM은 총 3일간 자선 애장품 경매, 팬 미팅, 팬 사인회, 공연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귀국했다.

[관련기사]

2AM, 태국 프로모션 성황리에 마쳐 조이뉴스24

2AM, 태국서 프로모션 열고 데뷔무대...'팬들 사랑 깜짝' 마이데일리

2AM 첫 해외 프로모션, 태국 방문 '팬 환대에 깜짝' 중앙일보 - 2009년 2월 16일

※ "음악산업 주간브리프"는 게이트웨이 위콘(www.wecon.kr)의 '업계는 지금' - '산업동향'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팀

팀장 이동주 (Tel. (02)2016-4010)

과장 김도윤 (Tel. (02)2016-4091)